

교육기록물관리기관 기록전시 방안 연구*

-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cords Exhibition Ways of Educational Archives: Focused on Gyeongsangnam-do

우 지 원 (Jee-Won Woo)**

이 용 재 (Yong-Jae Lee)***

목 차

- | | |
|---------------|--------------------------|
| 1. 서 론 | 4. 교육기록물관리기관 전시를 위한 고려사항 |
| 2. 이론적 배경 | 5.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전시 방안 |
| 3. 기록전시 사례 분석 | 6. 결 론 |

초 록

전시프로그램은 기록관에 생소한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 중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록관 전시프로그램은 기록물의 내용을 단순히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객의 관심도가 극히 저조하거나 전시 행사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기록관은 내용 중심의 기록을 열거하는 기존의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서, 전시된 기록물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록전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기록전시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국내외 기록 전시 사례를 분석하고, 교육기록물관리기관 전시를 위한 고려사항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전시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rogram of exhibition is used a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interact with users who are unfamiliar to archives. But, so far most exhibition programs in archives have been done in a way that shows simply the contents of records. So, in many cases, visitors of archives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exhibition, and they have hardly caught the purpose of the exhibition event. Archives need to get out of existing exhibition style which list contents-oriented records, and to develop a new exhibition way which can enhance users' interests and understanding about exhibition record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s and composition elements of record exhibition, analyzed the cases of archive exhibition in and out of Korea. And this study examined some considerations for the exhibitions of educational archives. As a result of this study, record exhibition ways for educational archives are provided.

키워드: 교육기록관, 기록전시, 전시프로그램, 기록관 홍보, 경상남도

Educational Archives, Records Exhibition, Exhibition Program, Archive Public Relations, Gyeongsangnam-do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기록연구사, 부산대학교 기록관리협동과정 박사과정(woo1980800@korea.kr)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lyj5384@pusan.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6년 10월 24일 최초심사일자: 2016년 10월 24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11월 1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4): 185-208, 2016.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4.185]

1. 서론

1.1 연구목적 및 방법

기록은 과거의 자취이며 인류의 기억이다. 또한 기록은 순간을 입증하며 역사를 웅변한다. 때문에 기록관에서 기록은 핵심을 이룬다. 기록 전시는 개인이나 조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산하거나 수집한 기록물을 활용하여 역사적인 주제와 소장 기록에 대한 관람객의 흥미를 불러 일으키고 기록관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록관에서 기록을 전시할 때 단순히 시간 순으로 나열하는 식으로 구성한다면, 관람객은 기록전시를 단조롭고 지루한 것이라고 간주하기 쉽다.

현재까지 국내 기록관 전시는 사진기록물만 활용하여 전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과 산하 대통령기록관에서 그나마 다양한 전시활동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그 외 기록관 단위의 기록전시는 주로 수집된 시청각기록물을 바탕으로 상설전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¹⁾ 반면, 외국의 경우, 다양한 전시 방식을 통하여 관람객과 소통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록관이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친숙한 존재로서 ‘서비스기관’으로 기능하며, 다양한 방식의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재, 진세연 2006, 24-26). 그러므로 국내 기록관에서도 이용자의 관심과 이해를 불러일으킬 혁신적인 전시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내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 기록물관리와 이용에서 한 차원 높은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행정은 지방교육자치제를 근간으로 하며, 교육청은 중앙의 교육행정은 물론 지방의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권화된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자치의 이념과 교육기록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청은 독립적인 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경남에서는 기록관과 박물관이 통합된 형태인 ‘교육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우지원, 설문원 2015, 154).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육기록물관리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기록관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대내외 인식을 증진하고 일반인의 관심과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록전시에 주목하였다. 전시프로그램은 기록관에 생소한 일반인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식중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기록관의 소장기록물에 대한 홍보를 통해 누구나 쉽게 기록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접점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국가기록원 2015, 11). 그리고 기록물이라는 ‘원본문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들이 배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김연주 2009, 10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존재이유를 알리고 종전의 단조로운 전시프로그램 방식을 탈피하여 관람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록전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국내외 기록관 전시의 내용, 전시 방법 등을 살펴보고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국내

1) 경남교육청 “개교100년 학교이야기展”(경남신문 2016.10.11.), 서울 성북교육지원청 “찾아가는 학교 기록전시회”(일요신문 2016.6.27.), 전북교육청 “전북교육기록사진 전시회”(일요신문 2015.12.7.)

기록관에서 전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 관련 공립 교육박물관인 서울 교육박물관과 사립 교육박물관 중 활발한 전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금강테마박물관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외사례의 경우, 고객연구관리과와 공공서비스팀을 설치하고 이용자만족도 조사를 꾸준히 하는 영국 국가기록원, 다양한 형태와 경로로 전시를 하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하여 전시와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홀로코스트기념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토론토교육청 박물관·아카이브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국내외 전시 사례 분석에서 관람객의 흥미를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고, 기록과 이용자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기록물관리기관 차원에서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록전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록 전시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전시정책수립, 관람객 성향분석, 기록물 속성분석 등을 수행하고, 이를 종합하여 종전의 기록전시의 틀에서 탈피하여 이용자의 관심과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록전시 방안을 제시하였다.

1.2 선행연구

이 연구에서는 설립예정인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전시에 참고할 수 있는 기록관 및 박물관의 전시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는 크게 전시의 개념을 다룬 연구, 전시

기법을 비교한 연구, 전시 방법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전시 개념을 다룬 연구이다. 김주연(2001)은 전시계획 및 평가프로세스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전시의 개념, 전시디자인의 개념 등을 정리하였다. 조민지(2014)는 사진을 이용한 기록 전시와 기억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전시와 기록의 원론적인 개념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기록관 및 타 기관에서의 전시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기록전시의 개선방안을 살펴본 연구이다. 김연주(2009)는 건국 60년 기념전시에서 국가기록원과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시를 비교분석하고, 기록전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종원(2007)은 교육박물관 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전시 공간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정수(2014)는 아카이브 전시 실태를 국가기록원, 대학기록관,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아카이브 전시의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이용재, 조혜영(2014)은 일본 대학기록관들의 전시활동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국내 대학기록관을 위한 홍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범주의 선행연구로 전시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김시은(2008)은 기업박물관에 중점을 둔 전시연출계획에 관한 연구를 하고, 전시 모델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김상덕(2008)은 대학기록관에서 교사 자료를 이용한 전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교육 기록물을 이용한 전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결순(2012)은 1982년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개관기부터 현재까지 독립기념관 전시 구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전시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연미, 최상현(2009)은 박물관 전시에 있어 공간·지각 심리라는 관

점에서 관람객의 시지각 요소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과학박물관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전시연출의 방법론을 논하였으나,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다. 오일환, 이승수(2010)는 서양고지도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전시콘텐츠 구성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서양고지도의 형태적 특징, 서양고지도에 나타나는 우리나라 명칭 표기, 위치 등을 가지고 다양한 전시콘텐츠 구성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재나, 유현경, 김건(2015)은 대통령기록관 전시에 있어서 스토리가 있는 전시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외 대통령기록관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기록관 전시에 있어 하나의 스토리를 구성하여 관람객의 관심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스토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기록전시를 기획하는 것을 제시하여, 국내 기록관 전시에 발상의 전환을 제공하였다. Garnet(2012)은 캐나다 토론토 교육청(Toronto Board of Education)의 설립 및 발전과정, 소장 자료 분석과 기록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2장에서 기록전시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살펴보았다.

2. 이론적 배경

2.1 기록전시의 개념

전시를 한다는 것은 의미의 표시이며, 목적이 있는 진열을 의미한다. 진열은 관람객과 공유하기 위해 진열된 대상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전시기획자의 '해석'과 '가공'이 개입된다. 따라서 전시는 개별 사물의 진열이라기보다는 신중한 해석과 특정한 주제에 따라 그룹 지어 놓은 사물을 지칭한다(김주연 2001, 21). 진열된 대상이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시물과 관람자 사이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이것을 연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전시물의 종류, 성격, 상태에 맞는 적절한 장치나 매체를 전시공간에 적절히 배치하여 관람자에게 보여주는 것이지만 단지 보여주고 진열하는 것만이 아닌, 구성과 연출을 통해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시켜야 한다(김시은 2008, 31).

기록전시도 기본적으로 일반전시의 개념과 일치한다. 기록학 용어사전에서 기록전시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기록 원본이나 사본을 조직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확장 서비스의 일환(한국기록학회 2008)'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시를 통해 기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기록관 및 기록을 널리 알려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시를 하는 것이다(이정수 2014, 7). 그러나 기록전시는 미술관 및 박물관에서의 전시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전시 대상의 특성 차이이다. 기록전시의 경우 원본 기록물 중 선별을 하여 기록의 내용과 가치를 관람객에게 전달한다. 원본 기록물 대신 사본기록물을 활용하여 전시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원본 기록물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가능한 일이다. 반면 미술관과 박물관 전시는 그 전시품이 주는 미적 가치와 작품성이 더 중요시된다.

둘째, 그 성격과 기능에 차이가 있다. 관람자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자연스럽게 '전시서비스'

관람을 위해 방문한다. 기관과 전시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박물관과 미술관은 전시를 위한 공간이라는 별도의 홍보 없이도 관람을 이끌어낼 수 있다. 반면에 기록관은 전시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므로 전시서비스의 관람동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마케팅과 홍보활동이 요구된다(이정수 2014, 7).

셋째, 전시 목적에서도 기록관과 미술관·박물관은 차이가 있다. 미술관과 박물관은 전시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람객과 소통하는 전시를 제공한다. 반면에 기록관은 기관의 보존 기록물을 가지고 기관과 기록관리라는 업무에 대한 홍보 목적과 이용자들에게 기록물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시를 한다.

기록전시의 개념과 미술관·박물관 전시의 개념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전시 개념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2.2 기록전시의 구성 요소

전시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기획과 진행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 기록관 전

시사례를 위한 표준 안내서가 없기에, 여기에서는 미술관 및 박물관의 전시개발과정을 참조하여 기록전시에 필요한 전시프로그램 구성요소를 살펴보았다.

데이비드 던의 전시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아이디어 수집, 기획, 제작, 가동, 최종단계를 걸쳐 평가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다시 아이디어가 수집되는 반복적인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록관 전시프로그램도 기존의 박물관, 미술관의 전시 이론의 전시개발과정을 참고할 수 있다. 기본단계에서 전시를 구체화할 때에는 단순한 진열, 장식 등에 그치지 말고, 전시장, 동선 관리, 조명, 전시장 공기정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전시장을 쾌적하게 하여야 한다(이은서 2013, 2). 또한, 기록물 전시의 목적과 내용을 관람객에게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이 좋을 것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이은서(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교육기록물관리기관 기록전시의 구성요소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기록관의 전시정책 수립이다. 현재 기록관에는 전시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



출처: 데이비드 던, 전승보 역 1998, 22.

〈그림 1〉 전시개발과정

록관 전시업무가 명시된 운영정책과 세부규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록물과 공간, 관람객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완성도 높은 전시의 바탕이 될 수 있게 세부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은서 2013, 11).

둘째, 전시 관람객에 대한 연구이다. 관람객은 과거와는 달리 의식, 태도, 관점을 지닌 능동적 주체로 변하고 있다. 전시품을 대하는 태도 또한 진귀하고 중요한 소장품의 보유로서의 가치에만 주목 하던 것에서 유물로부터 생성되는 개념, 의미, 지식 활용으로서의 가치를 중시하게 되었다. 소통방식도 지식과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관람객의 기대, 의견, 요구를 수용하는 민주적 참여와 창조적 협업이 강조되는 양 방향적 소통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기록관 전시 역시 관람객 유치를 위한 것이므로 어떠한 전시를 막론하고 기록관에서 목표 관람객 계층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록관은 기록물 전시를 하기 앞서 평소에 기관의 이용자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기록물 현황 파악과 수집 활동이다. 좋은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록관 소장 기록물을 파악하고 기록물을 꾸준히 수집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생산된 기록물과 수집된 기록물의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제를 발굴하고 전시 기획을 할 수 있다.

넷째, 전시공간이다. 대부분 기록관은 열람실과 기록물 보존서고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전시를 하더라도 기획전시 형태로 기관 로비 및 타 기관에 장소를 빌려 전시를 하고 있다. 기관 홍보차원에서 기관장 및 기록관장을 설득하여

상설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기록관 전시의 구성요소를 네 가지로 살펴보았으며, 향후 기록관 전시를 할 때 이러한 구성요소를 적용하여 전시를 기획할 수 있다.

3. 기록전시 사례 분석

3.1 국내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전시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교육관련기관의 전시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국내의 경우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다양한 전시활동을 하고 있지만 기존의 기록관 전시와 크게 차이점이 없어서 제외했다. 대신 교육기록물관리기관과 같은 차원의 성격을 가지는 교육박물관을 운영하는 기관을 살펴보았다. 교육 박물관은 관람객과 교육의 관계를 설명하여 주며 관람객은 전시와 체험학습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학교라는 공간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각종 교육관련 전시자료를 통해 관람객과 대화를 갖는 동시에 전시공간은 교육 자료의 성격과 가치에 적합한 조건을 제시하여 관람자의 자유로운 행위로 교육 역사자료를 감상하고, 관람객 스스로 교육 자료가 주는 교육 메시지와 의미들을 이해 할 수 있는 자발적인 경험을 유도한다(이종원 2007, 3-4). 이 연구에서는 국내 사례로서 공립 교육박물관 중 서울 교육박물관(前 서울교육사료관)을 선정하였고, 사립 교육박물관 중 해금강테마박물관을 분석 사례로 선정하였다.

3.1.1 서울교육박물관²⁾ 전시프로그램 분석

서울교육박물관의 출발은 1995년에 개관한 '서울교육사료관'이다. 교육 분야 기록관으로서의 '서울교육사료관'은 서울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효과적으로 전시하고 홍보하는 교육의 장이 되기 위하여, 1996년에 문화체육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교육전문박물관이 되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유 자료는 13,540점이며 1,309점이 전시되어 있다. 총 130여 평의 전시장은 상설전시장과 특별전시실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삼국시대부터 오늘에 이르는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모습을 살펴 볼 수 있도록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기관, 교육활동 등에 관한 각종 도표, 사진 유물들이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다.

전시구성은 교육역사의 흐름에 따라 6개의 존을 꾸며놓고 있으며 삼국, 고려, 조선시대의 교육 → 개화기 근대교육의 시작 → 일제 저항기의 교육 → 해방과 6.25 전란기 해방의 기쁨과 교육열기 → 교육과정기 지난 40년간의 교육의 변화 → 특별전시관 순으로 시계열적으로 전시하였다.

체험 교육으로는 전통천자문교실과, 1일박물관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통천자문교실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에게 서당에서의 교육 방법을 체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1일 박물관교실은 박물관을 찾는 개인 및 단체관람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선비옷 입어보기 체험, 전통놀이 체험 등을 제공한다.

3.1.2 해금강테마박물관³⁾ 전시프로그램 분석

해금강테마박물관은 사립박물관으로 2005년에 개관하였으며, 경남 거제시 남부면에 있다. 이 박물관은 해금강테마박물관 근·현대생활자료전시관으로도 불리우며, 기존 교육박물관의 단조로운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자료와 기록을 흥미로운 체험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전시구성은 1층은 복도공간갤러리 → 그때 그 시절 → 학교종이 땡땡땡 → 엄마 아빠 어릴 적엔 → 옛 시절을 돌아보며 → 역대 대통령 기념관 → 추억으로의 여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2층은 복도공간갤러리 → 세계유형모형법선 → 중세의 기사관 → 밀랍인형과 칸느 영화 포스터 → 기획전시실 → 유경갤러리로 교육과 연관이 되면서도 특색 있는 전시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은 1950년대의 시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세트장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대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는 표어를 벽면에 부착하고, 당시 모습의 미용실, 상점 등이 마을처럼 꾸며져 있다. 2층은 관장이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예술품, 법선, 밀랍인형이 전시되어 있으며, 매월 다양한 주제의 기획 전시가 이루어진다. 또한 독도체험, 진로체험, 안보체험, 유럽문화체험, 환경체험, 힐링체험, 프로젝트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학습관이 마련되어 있다. 예컨대, 독도체험으로 '독도 티셔츠 만들기', '독도 POP 파켓 만들기', '독도 풀라쥬 만들기' 등의 체험이 있으며, 진로체험으로 '박물관 사람들'이란 주제로 실제 큐레이터가 되어 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2) 서울교육박물관. 2009. 『서울교육박물관 홈페이지』. 서울: 서울교육박물관. [online] [cited 2016. 3. 2. - 9. 10.] <<http://edumuseum.sen.go.kr>>

3) 해금강테마박물관. 2005. 『해금강테마박물관 홈페이지』. 거제: 해금강테마박물관. [online] [cited 2016. 4. 5. - 10. 10.] <<http://www.hggmuseum.com>>

3.2 국외

국외 사례는 크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주제 기록관, 교육청 아카이브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선정된 분석 사례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중 영국 국가기록원과 일본 국립 공문서관, 주제 기록관 중 홀로코스트 기념관, 교육청 기록관 중 토론토 교육청 박물관·아카이브이다.

3.2.1 영국 국가기록원⁴⁾ 관람객 분석

1838년 의회법에 근거하여 공공기록보존소(Public Records Office: PRO)가 설립되었다. 1958년 공공기록법이 제정되었으며, 2003년 공공기록보존소와 고문서위원회(Historical Manuscripts Commission)가 통합되어 현재의 영국 국가기록원(The National Archives: TNA)이 설립되었다. 기록전시로는 본원 1층 로비에서 상설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시는 빨강, 파랑, 보라 등 다채로운 색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널리 알려진 Domesday book을 비롯하여 이용자의 관심을 끌 만한 다양한 전시 주제를 발굴하여 전시하고 있다.

영국 국가기록원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이용자 만족도 조사이다. 특히, 고객연구 관리과(Customer Research Manager)와 공공서비스팀(Public Services Team)을 두고 있는데, 국내 기록관 조직구성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이다. 설문지 작성 및 총괄을 공공서비스팀에서 하고 있으며, 설문은 영국 국가기록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설문과 온라인 접속

자를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 설문으로 구분된다. 영국 국가기록원의 설문은 단순 설문 방식이 아닌 사전방문정보, 영국 국가기록원 방문 편의성, 리서치 영역의 레이아웃과 구성, 직원들의 상담 이용도 및 수준, 직원의 친절도, 컴퓨터 검색률, 기록물 열람 및 사본 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그 조사 결과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한다(서영준 외 2015, 71).

3.2.2 일본 국립공문서관⁵⁾ 전시프로그램 분석

일본 국립공문서관은 “공문서 등의 저장, 열람·전시 및 공문서의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기관”을 목적으로 1971년 7월에 설치되었다. 1998년 7월에는 츠쿠바 연구 학원 도시에 츠쿠바 분관을 설치하고, 서고 등의 확충을 실시했다. 1987년 제정된 공문서관법과 1999년에 제정된 국립공문서관법의 규정에 따라 국립 공문서관은 그 설치 근거 및 책임 등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진다. 2001년 4월 나라의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독립 행정법인 국립공문서관이 되었다.

일본 국립공문서관은 다양한 형태와 경로로 전시를 한다. 예를 들면, 매년 봄과 가을에 열리는 특별전, 특정 주제로 기획을 하여 열리는 기획전, 다른 기관과의 제휴를 통하여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이 있다. 기획전은 연중 계속 열린다. 기획전의 한 사례로 ‘훈장과 포장’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기획전시가 2016년 5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되었다. ‘훈장과 포장’의 발자취를 보여주기 위해 보고서, 포상 조례, 포

4) The National Archives, 2016. *The National Archives Homepage*. Richmond: The National Archives. [online] [cited 2016. 5. 1. - 9. 20.] <www.nationalarchives.gov.uk>

5) 國立公文書館, 2007. 『國立公文書館 ホームページ』. 東京: 國立公文書館. [online] [cited 2016. 3. 1. - 10. 12.] <<http://www.archives.go.jp>>

상 박물관 등을 전시하였다. 그 이전의 전시는 2016년 4월 한 달간 전시된 ‘도쿠가와 이에야스 전’이었다. 2016년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16년 슌푸성에서 사망한 후 400년이 된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열렸던 전시이다. 연중 이루어지는 기획전시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3.2.3 홀로코스트기념관⁶⁾ 전시정책 수립 분석

홀로코스트기념관 건립은 1978년 1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홀로코스트에 대한 대통령위원회(the President's Commission)를 조직하고, 미국에서의 교육과 홀로코스트기억의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

에서 출발하였다.

홀로코스트기념관의 상설전시는 당시 실제 생존자인 한 소년의 시각으로 직접 체험하고 다른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게 꾸며져 있다. 1933년 나치의 등장에서부터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유대인들이 당한 소외와 박해, 학살을 비롯하여, 학살을 극복한 시기까지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이은서 2013, 48).

홀로코스트기념관의 전시는 상설전시, 어린이전시, 기획전시가 있으며 상설전시관은 전체 5층 건물 가운데 2층부터 4층까지 있다. 전시관의 관람 동선은 4층에서 시작되어 2층에서 끝나는데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시실 동

<표 1> 일본 국립공문서관 개최 전시 사례⁷⁾

전 시	전시 테마	비 고
봄, 가을 특별전	고도성장의 시대 1951-1972	디지털전시 병행
	하타 모토	디지털전시 병행
	근대 국가 메이지의 등장 (공문서로 본 메이지)	디지털전시 병행
	국립 공문서관 창립 40주년 기념 귀중 자료전 I 역사와 이야기	디지털전시 병행
	국립 공문서관 창립 40주년 기념 귀중 자료전 II 공문서와 세계	디지털전시 병행
	메이지 시대의 산업기술과 발명가	디지털전시 병행
	하타 모토의 실상	디지털전시 병행
	천황 재위 20년 기념 공문서특별전시회	디지털전시 병행
	배움의 계보 - 에도 시대부터 현대까지 -	디지털전시 병행
기획전	모자 보건의 발자취 -	
	사랑 왕조	
	메이지의 배우	
	환영! 역사 자료의 보물창고	디지털전시 병행
	에도의 레시피 - 요리부터 구황 식품까지 -	
	요괴 퇴치전	
	문명 개화와 메이지의 생활	
	공습의 기록 - 전국 주요 도시 전쟁 개황도 -	
	공문으로 본 만담의 역사	

6)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2016,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Homepage*, Washington, DC: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online] [cited 2016, 7. 1. - 9. 30.] <<https://www.ushmm.org>>

7) 國立公文書館, 2007, 『國立公文書館 ホームページ』, 東京: 國立公文書館, [online] [cited 2016, 3. 1. - 10. 12.] <<http://www.archives.go.jp>>

선을 설계한 것이다. 전시관 입구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신분증 카드가 비치되어 있다. 카드에는 수용소로 끌려간 인물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인물의 이야기가 적혀 있다. 관람객은 이 카드를 들고 ‘녹슨 철문’의 엘리베이터를 타면 4층 전시관으로 가게 된다(이은서 2013, 51-52.). 4층의 전시는 1933~1939년 나치 습격(Nazi Assault - 1933 to 1939)이라는 소재로 1933년 독일 나치당의 장악과 제2차 세계대전 발발에 대한 내용을 전시하고 있으며, 히틀러의 집권과 나치의 유대인 탄압정책이 강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관람객은 이러한 동선을 지나는 동안 제3자의 시선에서 증인의 눈으로 바뀌어 간다.

3층은 1940~1945년 최종해결(The “Final Solution” - 1940 to 1945)이라는 소재로 ‘게토 → 강제수용 → 절멸(絶滅)수용소’로 이어지는 유대인의 절멸과정을 보여준다(이은서 2013, 53). 전쟁의 막바지 부분의 전시로 아우슈비츠 가스실이 나타난다. 미니어처로 제작된 아우슈비츠로 줄줄이 들어가는 유대인들, 목욕탕처럼 위장된 가스실과 생체실험실 등은 극심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이처럼 이어지는 전시실 공간을 지나 로비로 내려오면, 관람객은 홀로코스트의 중요 행사인 ‘기억의 날(Days of Remembrance)’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잊지 않게 된다.

3.2.4 토론토교육청 박물관·아카이브⁸⁾

교육프로그램 분석

토론토교육청은 캐나다에서 가장 큰 교육청

으로서, 토론토 전역 588개 학교의 약 24만 5천명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며, 성인·계속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16만 명 이상의 평생 학습자에게 봉사한다.

2011년에는 다양한 실험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첫째, 토론토 교육청 자료 문화 아카이브를 실험적인 학습과 연계하기 위한 파트너십 프로젝트이다. 토론토 대학의 정보학 교수들과 협력하여 토론토 교육청 학생들이 컬렉션을 직접 활용하는 수업을 박물관학 대학원생들이 지원하도록 하는 흥미로운 학습방식을 개발하였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교육사 연구 프로젝트이다. 토론토 교육청의 기록과 박물관컬렉션, 미술품을 이용하여 Egerton Ryerson(1803-1882)이 토론토 공교육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는 온라인 프로젝트이다. 교육자이자 정치가였던 Ryerson은 온타리오 주 공립교육제도를 확립한 인물이다. 이밖에 토론토 교육청은 캐나다 유산협회, 도시 기반의 사업단, 공동체 아트 페스티벌 등의 비영리 조직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새로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우지원, 설문원 2015, 163-164).

3.3 국내외 기록 전시사례 비교분석

교육기록물관리기관 전시를 위해 국내는 서울교육박물관, 해금강테마박물관의 전시구성, 전시안, 체험관 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국외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영국 국가기록원과 일본 국립공문서관, 역사적인 사건을 주제로 교육과 전시를 하는 기관인 홀로코스트기념관, 교육관

8) Ontario Museum Association. 2015. *Ontario Museum Association Homepage*. Toronto: Ontario Museum Association.

런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볼 수 있는 토론토 교육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서울교육박물관은 일반적인 국내 공공기관의 전시처럼 기본적인 형태의 전시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해금강테마박물관은 관람객의 흥미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전시관과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 국가기록원은 이용자 분석 및 설문조사를 매우 세부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고객 만족도가 96% 이상으로 나오고 있다. 일본의 국립공문서관은 기획전시 위주의 전시를 하고 있는데 기획전시이긴 하지만 연간 1, 2회 개최되는 기획전시가 아니라 꾸준히 테마를 정해서 기획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유대인 학살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관람객이 기록전시공간을 통하여 몸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전시를 하고 있다. 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공간 연출, 기록물의 적재적소 배치, 서사 구조의 동선 설계 등을 통해 단순히 눈으로 보는 전시가 아닌 관람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시를 하고 있다. 토론토교육청은 우리나라와 다른 다양한 교육활동과 전시활동을 하고 있어 국내 교육기관에서 기록전시를 할 때 많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국내외 사례를 교육기록물관리기관 전시와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교육박물관 전시사례는 독창적이거나 특별한 전시기획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으나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참조할 수 있다. 13,540점의 생산, 수집된 교육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설전시장과 특별전시장으로 나눠 연대기적인 방법을 통해 전시를 하고 있는

데, 공공기관의 교육을 주제로 전시를 한다면 현재의 기록전시의 단점인 기록물을 단순히 보여주는 방식의 전시가 아닌 독자들의 시선과 마음을 끌 수 있는 전시 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해금강테마박물관은 연대기적 역사 방법을 통한 전시는 지양하고, 관람객과의 상호작용 및 소통에 초점을 맞춘 전시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옛 교실, 옛 골목거리 등을 꾸며 관람객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고 박물관의 역사, 교육관련 기록물은 복도 통로를 통해 전시하여 복도를 지나 다른 전시관으로 갈 때 가볍게 볼 수 있게 전시하고 있다. 또한 관람객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문서만을 전시 대상으로 삼지 않고 주제 및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박물과, 관련 자료 묶음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이외에 독도체험, 진로체험, 안보체험, 유럽문화체험, 환경체험, 힐링체험 등 주제별로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셋째, 영국 국가기록원은 기록전시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진 않았지만 기관을 방문하는 이용자 분석을 위한 별도의 부서를 마련하는 등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기록전시의 구성요소 중 가장 큰 부분이 관람객의 성향 분석인데, 이 부분에서 가장 앞선 기관이라 볼 수 있다.

넷째, 일본국립공문서관은 일본의 역사, 역사적 인물, 역사적 사건 등을 해당 원본 기록물을 활용하여 전시를 하고 있다. 교육기록물관리기관도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이므로 원본 기록물을 가지고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전시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 국립공문서관의 사례는 국내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전시에도 시사점

을 제공한다.

다섯째, 홀로코스트기념관은 대량의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지만, 기록전시에서는 소량의 일부 기록물만 가지고 구성한다. 또한 관람객들에게 많은 설명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계산된 동선, 전시의 서사 구조, 체험 분위기의 전시실, 전시물의 적재적소 배치로 관람객들은 기록물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여섯째, 토론토교육청의 기록전시 사례는 국내 기록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견학프로그램, 문화기관과 연계한 수업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상의 국내외 사례들의 특징을 비교하여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4. 교육기록물관리기관 전시를 위한 고려사항

2장에서 제시한 기록관 전시 구성요소 분석을 통해 기록관 전시정책 수립, 기록관 보유 및 수집 기록물 분석, 관람객의 의도 파악 등 3가지 구성 요소를 밝혔다. 3장에서는 국내외 기록관 전시사례 분석을 통해 2장에서 구성한 구성요소와 접목시켜 보았다. 4장에서는 교육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전시를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4.1 전시정책수립

교육기록물관리기관 기록전시를 위해 전시정책 방향을 세우게 되면 가장 먼저 전시의 목

<표 2> 국내외 기록관·박물관 기록전시 사례 특징 비교

전시구성	전시내용	기관
전시정책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기획에서 소장 기록물을 대량 전시하지 않고, 특정 주제를 부각하는 소수의 기록물을 전시한다. • 번잡한 설명을 부여하지 않고, 계획된 동선, 관람객의 몰입이 일어나는 공간을 통해 자연스러운 전시 체험을 제공한다. 	홀로코스트기념관
관람객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설문 연3회 실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용자 방문정보(국적, 방문기간, 방문주기 등) ② 이용자 소지 기기(스마트폰/카메라 등) ③ 서비스 만족도 ④ 이용자 정보(성별, 연령대) • 웹사이트 설문조사 연2회 실시 이용목적, 관심사, 이용자 정보 분석을 통해 웹사이트 개편에 기본정보로 사용 	영국국가기록원
전시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국시대부터 오늘에 이르는 국내 교육의 발전모습 전시 • 교육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록물을 복도에 배치하고, 각종 주제 공간을 구성하여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전시체험 제공 • 기관 기록물 속성 파악을 통해 매달 특정 기록물을 활용한 기획전시 실시 	서울교육박물관 해금강테마박물관 일본국립공문서관
교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견학프로그램 개발 • 주변 대학과 연계하여 교육청 기록물을 활용한 학습방식 개발 • 교육청 기록물을 활용한 교육사 개발 프로젝트 실시 	토론토 교육청 박물관·아카이브

적, 구체적인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왜 기록 전시를 개최하게 되는지 개최를 하게 된다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전시를 개최할 것인지 이 목표에 따라 전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시목표가 수립되면 전시개요를 작성하고 전시 세부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다음으로 이에 따른 추진방향과 전시구성, 소요예산, 홍보 계획, 전시효과와 의의 등의 목차로 작성하여야 한다.

전시개요는 전시명과 목적, 장소 등의 기본 개요부터 목표 관람객과 운영방식, 기본방향과 전시내용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다. 전시세부내용은 앞서 기획한 전시구성에 따라 각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각 공간별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간다. 다음으로 연간 추진일정 계획을 제시하고 소요예산과 홍보계획 등을 포함한 전시 정책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전시정책을 통해 전시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며 자세한 구성안은 <표 3>과 같다.

다음으로 이런 전시프로그램 구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시자문 실시, 전시설계, 전시공사 및

전시물 제작설치, 도록제작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하고 이에 따른 예산집행계획을 세워서 전시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4.2 관람객 유치방안

관람객 유치방안 분석을 위해서는 관람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 주요 관람층은 학생이다. 다음으로 교사, 학부모이며 그 다음 대상은 지역 시민들이 관람층이 된다. 이에 주안점을 두고 관람객 유치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은 설립예정 기관이므로, 현재 전시가 진행되는 기관 중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병무청 병무역사기록전시관 관람객 유치방안 보고서(병무청 2015)를 참고하여 관람객 유치방안을 분석하였다. 병무청 병무역사기록전시관은 관람객 유치를 위해 관람계층별, 방문 유형별 월별 관람 인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람객 유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기록물관리기관 관람객 유치방안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표 3> 전시프로그램 구성안

구분	주제	세부내용	비고
경남교육 소개	경남교육의 역사	▶ 학교역사, 변천과정, 학교별 상징물 전시 ▶ 언론보도기록을 통해 경남도내 야학의 역사 파악 기획전	
	개교100년 학교이야기	▶ 개교 100년 이상 된 학교 소개(시청각, 행정박물 등)	
체험형 전시	추억의 교실	▶ 60~70년대 교실 재현	
	삼행시백일장, 포토존	▶ 삼행시: '책가방'으로 삼행시 참여코너 운영(성인·학생) ▶ 포토존: 옛날교복 포토존 운영(남·여, 성인·학생)	
교육 활동	진로교육	▶ 기록연구사, 학예연구사 업무 체험	
	선생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 경남교육역사를 통한 역사수업	

첫째, 초·중·고교 '체험학습'과 연계한 홍보 실시이다. 교육부, 시·도, 시·도교육청 및 경남 및 부산, 울산 초·중·고를 대상으로 체험학습 인정 공문을 시행한다. 전시 관람은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희망하는 관람객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나 초기에는 전시 자체를 안내해야 하므로 기관의 장점을 살린 의도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둘째, 전시관 체험 후 기념사진 또는 소감을 등록하면 우수작을 선별하여 SNS홍보 및 기념품 제공 등을 통한 홍보 및 관람객 관심을 유도한다.

셋째,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 및 경상남도 등과 협조하여 단체관람을 추진한다.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 기록관리 관리자 교육 과정에 교육기록물관리기관 전시 견학 프로그램 연계, 영남권 기록관리 협의회 회의 시 전시관 견학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관련 종사자의 관람을 유치한다.

넷째, 주변 박물관, 미술관, 교육기록물관리기관내 홍보 리플릿 등을 상호 비치하여 비슷한 지역에 있는 기관들의 교차 전시를 유도한다.

4.3 기록물 속성분석

교육기록물관리기관 기록전시를 위해 교육청 생산·수집 기록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교육청기록물은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산하 18개 지역교육청과 각 직속기관, 유·초·중·고·특수학교 기록물을 포괄한다. 하지만 이 기록물들은 업무를 위해 생산된 기록물이 대부분이므로 이 장에선 교육청 기록물 중에서도 기록물 전시의 준비 단계로 경남교육역사기

록관 기록물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경남교육역사기록관 보유기록물 현황은 <표 4>와 같다.

일반 문서류는 권으로 수집한 문서 739권, 날 전으로 수집한 문서 737건으로 나뉜다. 권은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회의록이 대부분이며 날 전으로 수집된 문서는 개인이 기증한 봉급명세서, 인사발령통지서, 노래부르기대회 우수상장, 임명장, 양성소과정 수료증 등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개인 관련 기록물은 관람객의 공감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물이며 경남교육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록 전시로 활용될 수 있다.

시청각 기록물은 사진·필름류, 녹음·동영상류로 나뉘볼 수 있다. 사진·필름류는 거창 지역졸업생사진(1946), 경남교육위원 의정활동 사진, 소비절약고취 웅변대회 등 행사 활동의 결과물이 대부분이다. 녹음·동영상류는 총 697점으로 국민체조, 경남도의회 회의자료, 교실 선진화 교육자료, 행정사무감사 녹취 등 업무활동을 위해 생산된 기록물이 대부분이다. 이런 기록물도 경남교육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다.

간행물은 일반간행물과 교과서로 나뉘 볼 수 있다. 약 2,000여 권의 일반간행물의 경우 교과서가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등본국역사(1907), 중등신학(1907), 보통학교 학도용 한문독본(1908), 간이상업무기학(1908) 등 100년 이상 된 교과서를 볼 수 있어 단순 기록물만 전시하더라도 관람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이외에 행정박물은 1,000점 정도인데 강습증서, 포장 등 과거자료부터 학교 중, 인체해부도 등이다(우지원, 설문원 2015, 169-170).

〈표 4〉 경상남도교육역사기록관 보유기록물 현황

보유량 및 내용구분			보유량	주요내용	총계
일반 문서류	문서(권)		739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회의록(제1회~248회)	
	문서(건)		737	선행뺏지수여증(1971) 두미공립초등학교 사령통달(1949) 등	
	소계				1,476
시청각	사진· 필름류	사진	1,961	거창지역졸업생사진(1946) 거창공립청년훈련소평중좌사열기념(1943) 등	
		앨범	16	경남교육위원 의정활동 사진 등	
		필름	19	릴 필름(자연과/버섯)	
		시청각필름	403	교육공무원명예퇴임(1983) 소비절약고취용변대회(1985)	
		시청각 스캔파일	4,237	김해, 진주, 양산, 밀양, 거제, 함안교육지원청 수집자료	
			2,247	개교 100년 이상된 학교 시청각기록물	
	녹음· 동영상류	LP	8	국민체조(1978), 한국가곡전집(1975) 등	
		비디오테이프	86	경남도의회 회의 자료	
		카세트테이프	475	제11대경남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소견발표회 녹취자료 (1998) 행정사무감사 녹취 등	
		CD	17	교실 선진화 교육자료 신뢰받는 학교·감동주는 교육 등	
		DVD	110	각종 회의자료	
		파일	1	청소년과의 만남 녹취록(2014)	
	소계				9,580
간행물	일반간행물		2,042	초등본국역사(1907), 중등신학(1907) 간이상업부기학(1908) 등	
	교과서		925	중등 체육교본(1954), 표준화학 상(1956) 최신해석(1956), 새중학문법(1971) 등	
	소계				2,967
행정박물	소계			필통(연필10자루), 주관, 학교명찰, 국민교육헌장(1968), 교복(남, 여), 풍금(1970년대) 등	1,001
총계					15,024

출처: 경남교육청 보유목록대장 2015.

이외에 경상남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함께 수집활동을 펼친 결과물도 보유하고 있다. 먼저 1960.1.1. 이전 개교한 학교에 대한 시청각 기록물 수집 활동을 펼쳤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학교전경, 입학·졸업식(졸업 사진), 주요행사, 교육활동 사진 등의 시청각 기록물 총 4,237점을 수집하여 스캔작업을 실시

했다. 스캔작업은 「사진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NAK/G 8-1: 2013 v1.0)」을 참고하여 기록물의 진본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잊지 않았다.

다음으로 2016년 7월~10월까지 경남도내 개교 100년이 지난 학교 48교에 대한 기록물 수집 작업을 펼쳤다. 결과 교표, 교복, 학교 전경 시청각기록물 등 총 2,247건의 중요한 기록

물을 보유하고 있다.

4.4 교육기록전시 목표

앞서 살펴본 기록전시 고려사항은 정책수립, 관람객 유치, 기록물 속성 파악이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전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목표는 소통과 공감을 통한 관람객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다.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소통과 공감은 학교라는 주제로 연결된다. 관람객은 자신이 졸업한 학교, 연고가 있는 지역의 학교들에 대한 기록 전시를 보면서, 더욱 큰 흥미를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록전시가 다양한 공간체험과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는 전시 방식으로 제공한다면, 기록이 표현하는 대상은 물론 관람객 상호간에 더욱 공감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전시 목표를 구성하여야 한다.

공감을 가지기 위한 첫째 목표는, '지루하지 않는 경남교육의 역사 설명'이다. 경남교육기록물관리기관은 관할 교육기관의 지도·점검, 교육, 향토자료 등의 수집업무를 하는 기관이며, 특히 경남교육의 30년 이상 된 기록물을 관리하는 경남교육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곳이다. 따라서 기록전시의 시작은 경남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기록 전시가 보여준 것처럼 단순 연대기적 전시를 할 경우 관람객의 관심을 유도할 수 없다. 따라서 해금강테마박물관과 같이 경남교육의 역사를 실내 전시관을 이용하지 않고 전시관 통로 또는 벽면을 통해 역사를 보여준다면 관람객들이 부담 없이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둘째, '경남의 학교 소개'이다. 경남의 역사 깊은 학교의 사진, 박물관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추억, 공감,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를 할 수 있다. 관람객이 졸업한 학교 이기에 일단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학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여준다면 더욱 몰입하여 관람을 할 수 있다.

셋째, '체험형 전시'이다. 체험형 전시에는 직접 몸을 활용하여 체험하는 전시부터 놀이와 실험, 감동을 주는 전시 등이 있다. 해금강테마박물관은 체험학습관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시관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은 일반인이 접하거나 소장하기 힘든 교육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관임으로 이러한 교육기록물을 특정 주제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기록과 이용자의 상호작용으로 과거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회 제공이다. 해금강테마박물관 진로체험관은 '박물관 사람들(유물보존)'이라는 체험을 통해 학예연구사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 전시관에서 이러한 진로체험을 제공한다면 학생들에게 유익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5.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전시 방안

기록관 전시의 가장 중요한 점은 관람객과의 소통과 공감이다. 기록전시는 기록물의 질적, 양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기록물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전시장을 꾸며야 하는지도 중요하다. 전시매체의 분류는 전시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 실물, 복제 등과 같은 실증형 전시매체, 전시의 설명이나 해설을 보여주는 설명패널, 음향 등의 설명형 전시매체, 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모형, 디오라마, 기록화, 애니메이션, 지형모형 등의 상황형 전시매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시간형 전시매체로 분류할 수 있다(국가기록원 2013, 154). 따라서 기록관 전시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록관 전시 계획을 수립하고 전시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기획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4장에서 분석한 교육기록물관리기관 전시를 위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설립 예정인 경남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를 위한 전시 방안(예시)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5.1 경남교육소개

경남교육 소개를 위해 ‘경남교육의 역사’, ‘개교 100년 학교이야기’ 등의 전시 안을 구상할

수 있다. 먼저 경남교육의 역사 소개를 위해 경남교육의 역사 연대기를 실내 전시장이 아닌 벽면 등을 활용하여 관람객들이 지루해 하지 않고 가볍게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꾸민다. 또한 반대 복도벽면에는 경남지역 1960년 이전 개교한 학교에서 수집한 4,237점의 시청각기록물을 사진필름 형식으로 장식하여 자연스럽게 경남교육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예시는 <그림 2>와 같다.

다음으로 경남도내 개교 100년이 넘는 학교 현황 및 상징물, 역사기록물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등을 전시하고 관람객들의 단순 관람뿐 아니라 100년 이상 된 학교 졸업생들은 해당 학교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참여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경남도내 개교 100년이 넘는 학교는 총 48개교이며 수집 기록물은 2,247건이 있다. 학교들이 보존하고 있는 시청각, 행정박물 등의 기록물을 통해 전시를 기획할 수 있다. 경남교육소개 전시 기록물 예시는 <그림 3>과 같다.



〈사진으로 보는 경남교육〉



〈경남교육 70년〉

출처: 제11회 경남교육박람회 경남교육역사관

〈그림 2〉 경남교육의 역사



〈양산 보광중 단체사진(1930년대)〉



〈김해동광초 학교전경(1930년대)〉



〈김해합성초 교기(1930년대)〉

출처: 양산보광중, 김해동광초, 김해합성초, 직접 방문 수집

〈그림 3〉 개교 100년 학교이야기 주요 전시물 예시

5.2 체험형 전시

‘체험형’ 전시는 ‘추억의 교실’, ‘삼행시 백일장’, ‘포토존’ 등의 전시관을 꾸며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며 추억을 챙겨갈 수 있게 꾸밀 수 있다. 60~70년대 교실모습을 재현하고 옛날교복 전시, 교사책상과 학생 책걸상, 풍금, 옛날 도시락 책가방 등으로 추억의 교실을 꾸민다. 또한 삼행시 백일장, 옛날교복 포토존 등으로 꾸밀 수 있다(〈그림 4〉 참조).

5.3 교육활동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전시인 만큼 활발한 교육제공도 필요하다. 또한 교육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전시가 이루어지면 관람객의 대부분은 초·중·고 학생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초·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안보체험, 환경체험 등으로 나눠 주제별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최대 관심사가 진로이기 때문에 진로에 관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인 만

큼 교사, 기록연구사, 학예연구사 등 교육과 관련된 진로를 정하고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체험을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일 기록연구사 체험’을 통해 기록물 수집, 분류, 평가 및 폐기 경험을 할 수 있고 기록연구사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기록연구사에게 직접 듣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다음으로 초등교사 및 중등 사회, 역사 교사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기획할 수 있다. 교사들이 경남교육의 역사 기록물들을 가지고 역사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다양한 기록물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그림 5〉와 같이 김해동광초의 졸업사진을 가지고 일제강점기 역사의 설명이 가능하다.

똑같은 졸업사진 두 장이지만 1934년은 일제강점기 문화통치에서 민족말살통치기간으로 넘어가는 시기로 아직 교사가 양복을 입고 졸업사진을 찍고 있다. 반면에 1944년 졸업사진은 일제강점기 말기 전시 총 동원 체제였던 시기로 초등학교 교사들까지 군복을 입고 있다. 이렇게 두 장의 졸업사진만 가지고도 일제강점기 역사를 생생히 보여줄 수 있듯이 경남교육의 많은 기록물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책가방으로 삼행시를〉



〈추억의 교실〉

출처: 제11회 경남교육박람회 경남교육역사관

〈그림 4〉 체험형 전시



〈1934년 김해동광초 졸업사진〉



〈1944년 김해동광초 졸업사진〉

출처: 김해동광초등학교

〈그림 5〉 김해동광초 졸업사진

6. 결 론

이 연구는 교육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앞두고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증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교육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이후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관의 홍보활동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록전시에 주목하였다. 현재까지의 기록전시 방식은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문헌연구와 국내외 사례분석을 수행하고, 기록전시 구성요소를 살

펴보았다. 특히, 이용자와 소통하는 기록관 전시를 위해서는 기록전시 정책제시, 대상 기록물 분석, 관람객의 태도 변화 및 의도파악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설립예정인 경남교육기록물관리기관을 위한 전시에 적용하였고, ‘경남교육소개’, ‘체험형 전시’, ‘교육활동’ 등 테마를 설정하였다.

첫째, 경남교육소개는 경남교육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설명할 수 있을가에 초점을 맞췄고 결과 전시장 벽면 등을 통해 경

남교육의 역사를 보여주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또한 경남교육의 역사를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는 개교100년 학교이야기展 등의 소주제를 정하였다.

둘째, 체험형 기록전시를 기획하였다. 현재 많은 기관에서 체험형 전시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단순한 설명과 시설물을 만지거나 입어보는 체험이 대부분이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단순 체험에서 벗어나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특성을 살려 학교라는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교실체험, 삼행시 글짓기, 포토타임 공간을 구상하였고, 교육에 초점을 맞춘 진로체험을 별도의 주제로 정하여 전시를 구상하였다.

셋째, 교육활동 부분이다.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이기에 교육 부분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관람객들의 대부분이 교사와 학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과 교사로 구분하고, 학생도 초등학교, 중학생과 고등학교 이상으로 나뉘어서 각 연령에 맞는 교육 기획을 제시하였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체험을 기획하였다. 특히 학예연구, 기록연구 등 특수한 기관이 아니면 접하기 힘든 직업에 대한 체험을 해 봄으로써 직업 선택에 있어 더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남교육을 나타내는 역사이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 기록물을 통해 초·중등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는 기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사들의 교육을 위한 지원교육과 동시에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도 기획하였다.

국내에서는 기록전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단계이고,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앞두고 기록전시 방안을 기획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기록관 전시 방식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전시기획을 하였다는 점이다. 교육기록물의 특성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관심과 이해를 대폭 증진할 수 있는 전시가 될 수 있는 기록전시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사, 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기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교육문화유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시 기획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전시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셋째,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전시를 위하여 종전의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전시목표와 전시방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함으로써, 국내의 기록관들이 향후 기록전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전시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에서도 기억 저장고이자 교육의 장으로서 교육기록물관리기관이 법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조속히 설립되고, 기록과 이용자를 소통하게 하고 기억이 살아나게 하는 전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상덕. 2008. 교사사료 전시를 통한 박물관 활성화 방안. 『2008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학술대회』, 2008년 4월 16일-18일, 강릉: 강릉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20-34.
- [2] 김시은. 2008. 『기업박물관의 전시연출계획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 [3] 김연주. 2009. 아카이브와 박물관의 전시 비교와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2): 103-131.
- [4] 김주연. 2001. 『현대 뮤지엄의 전시계획 및 평가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5] 국가기록원. 2015.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v1.0)』. 대전: 국가기록원.
- [6] 국가기록원. 2013. 『국가기록박물관 전시기획 및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대전: 국가기록원.
- [7] 데이비드 딘. 1998. 『미술관 전시, 이론에서 실천까지』. 전승보 역. 서울: 학고재.
- [8] 박결순. 2012. 독립기념관 전시의 교체·보완 추이와 향후 과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2: 447-487.
- [9] 이연미, 최상현. 2009. 과학박물관 실내공간의 전시매체 유형에 따른 시지각 이론 및 요소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9년 5월 29일, 서울: 한성대학교: 89-94.
- [10] 우지원, 설문원. 2015. 통합형 지방교육기록물관리기관 설립 방안: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2): 153-180.
- [11] 오일환, 이승수. 2010. 서양고지도를 활용한 ‘동해’ 전시 콘텐츠구성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7): 208-219.
- [12] 이용재, 조혜영. 2014. 대학기록관의 홍보 전략 연구: 일본 대학기록관의 전시활동 분석을 중심으로. 『디지털도서관』, 75: 3-20.
- [13] 이용재, 진세연. 2006. 지역주민의 친구,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일본 공문서관 이야기. 『디지털도서관』, 44: 14-31.
- [14] 이은서. 2013. 『아카이브의 전시방법론 연구: 해외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박물관학과.
- [15] 이재나, 유현경, 김진. 2015.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대통령기록관 전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3): 87-114.
- [16] 이종원. 2007. 국내 교육박물관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실내디자인학과.
- [17] 이정수. 2014. 『아카이브 전시서비스의 실태와 활성화 방향에 관한 연구: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 전공.
- [18] 조민지. 2014. 이미지의 시대 기록전시와 사진기록. 『기록학연구』, 39: 73-100.

- [19] 최석현 외. 2013. 아카이브의 디지털 전시 활용효과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7-33.
- [20] 서울교육박물관. 2009. 『서울교육박물관 홈페이지』. 서울: 서울교육박물관. [online] [cited 2016. 3. 2. - 9. 10.] <<http://edumuseum.sen.go.kr>>
- [21] 해금강테마박물관. 2005. 『해금강테마박물관 홈페이지』. 거제: 해금강테마박물관. [online] [cited 2016. 4. 5. - 10. 10.] <<http://www.hggmuseum.com>>
- [22] The National Archives. 2016. *The National Archives Homepage*. Richmond: The National Archives. [online] [cited 2016. 5. 1. - 9. 20.] <www.nationalarchives.gov.uk>
- [23] 國立公文書館. 2007. 『國立公文書館 ホームページ』. 東京: 國立公文書館. [online] [cited 2016. 3. 1. - 10. 12.] <<http://www.archives.go.jp>>
- [24]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2016.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Homepage*. Washington, DC: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online] [cited 2016. 7. 1. - 9. 30.] <<https://www.ushmm.org>>
- [25] Ontario Museum Association. 2015. *Ontario Museum Association Homepage*. Toronto: Ontario Museum Association.
- [26] Garnet, D. 2012. "Unknown and Hidden: The 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Education Archive." *The Canadian Review of Art Education: Research & Issues*, 39(1): 48-6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Sangduk. 2008. "A Study on Ways to Vitalize Museums through the Exhibition of Teachers' Materials." In *Proceedings of 2008 Symposium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University Museums*, April 16th-18th, 2008, Gangneung: Marine Biology Center for Research & Education at Kangnung National University: 20-34.
- [2] Kim, Sieun. 2008. *A Study on Exhibition Plan of Corporate Museum*. M.A. thesis, Major in Interior Design,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Graduate School of Industry, Konkuk University, Korea.
- [3] Kim, Yeon-Joo. 2009. "Archives and Museum Exhibitions Compared: with the Emphasis on the Exhibitions Held in Memory of the 60th Anniversary of National Found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9(2): 103-131.
- [4] Kim Juyoun. 2001. *A Study on the Process of Contemporary Museum Exhibition Planning & Evaluation*. Department of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Kookmin University, Korea.
- [5]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5. *Standard for the Public Records Service Version 1.0*.

-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 [6]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3. *A Study on Exhibition Planning and Contents Development of National Record Museum*.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 [7] Dean, David. 1998. *Museum Exhibition: Theory and Practice*. Translated by Jeon, Seung-Bo. Seoul: Hakgojae.
 - [8] Park, Gulsun. 2012. "Development of the Replacement and Supplementation of the Display in Independence Hall of Korea and Future Tasks." *Journal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42: 447-487.
 - [9] Lee, Yeon-Mi and Choi, Sang-Hun. 2009.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ories and Elements of Visual Percep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Exhibition Media of Science Museum Interior Space." I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Conference*, May 29th, 2009, Seoul: Hansung University: 89-94.
 - [10] Woo, Jee-Won and Seol, Moon-Won. 2015. "Establishing the Educational Archives through Integrating Museum, Archives and Library Functions in Gyeongsangnam-do."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2): 153-180.
 - [11] Oh, Il-Whan and Lee, Seung-Su. 2010. "Contents Construction of 'Sea of Korea' Using European Antique Map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0(7): 208-219.
 - [12] Lee, Yongjae and Jo, Hyeyoung. 2014. "A Study in the Public Relations Strategies of University Archives: Focused on University Archives Exhibition Activities in Japan." *Digital Library*, 75: 3-20.
 - [13] Lee, Yongjae and Jin, Seyeon. 2006. "Local Archives as Friends of Local Residents: Japanese Public Archives Story." *Digital Library*, 44: 14-31.
 - [14] Lee, Eun Seo. 2013. *A Study on Methodology of Archive Exhibitions: Based on the Cases of Overseas Archives*. M.A. thesis, Department of Museum, Graduate School of Culture and Arts, Myongji University, Korea.
 - [15] Lee, Jae-Na, Yoo, Hyeon-Gyeong and Kim, Geon. 2015. "A Study on Exhibition of Presidential Archives Using Storytell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5(3): 87-114.
 - [16] Lee, Jong Won. 2007. *A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Space for Internal Museum of Education*. M.A. thesis, Department of Interior Design, Graduate School, Cheongju University, Korea.
 - [17] Lee, Jeong Soo. 2014. *A Study on the Reality and the Activation ways of Archive Exhibition Service: Focusing o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M.A. thesis, Program in Archiv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18] Jo, Min-Ji. 2014. "Archival Exhibitions and Photographs in the Age of the Imag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9: 73-100.
- [19] Choi, Seok-Hyun et al. 2013. "An Analysis of the Effect on Using Digital Exhibition of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1): 7-33.
- [20] Seoul Education Museum. 2009. *Seoul Education Museum*. Seoul: Seoul Education Museum. [online] [cited 2016. 3. 2. - 9. 10.] <<http://edumuseum.sen.go.kr>>
- [21] Haegeumgang Theme Museum. 2005. *Haegeumgang Theme Museum Homepage*. Geojae: Haegeumgang Theme Museum. [online] [cited 2016. 4. 5. - 10. 10.] <<http://www.hggmuseum.com>>